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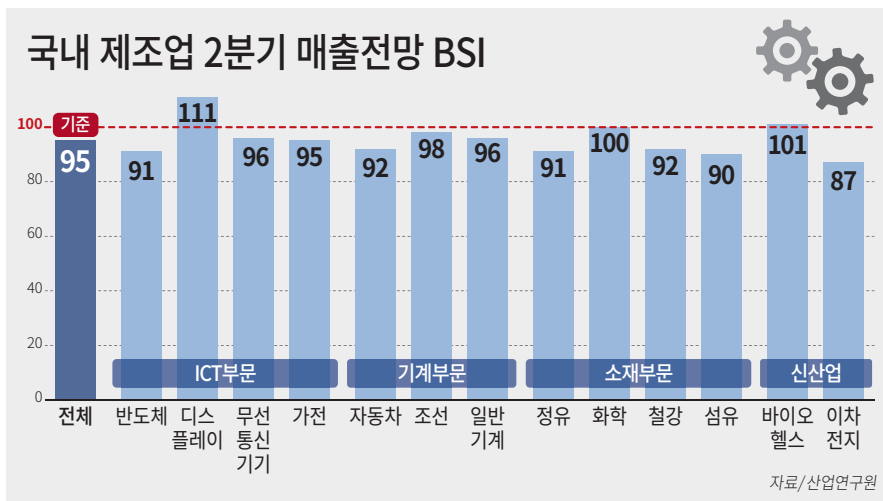
제조업체 40% “관세 대응책 없다”… 2분기 매출 감소 전망

산업연구원, 매출 전망 BSI 95 집계
관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 우려
대응 전략에 '구매처 다변화' 등 응답

국내 제조업 2분기 매출이 전 분기보다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제조업체 절반 이상은 경영활동에 부정적 요인으로 '내수 부진'과 '재고 누적'을 꼽았고, 10곳 중 4곳 이상은 트럼프 관세 정책에 비롯한 대응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17~28일 1487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2분기 매출 전망 BSI가 95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BSI는 100(전 분기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 분기 대비 증가(개선)한다는 의견이 많음을, 0에 근접할수록 감소(악화)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2분기 매출 전망 BSI는 지난 1분기(88)보다는 7포인트 올랐으나, 작년 3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기준선을 하회했다.

매출을 비롯해 시황(91), 수출(96), 설비투자(96), 재고(97), 고용(97), 경상 이익(89) 등 다른 항목 2분기 전망 BSI도 모두 직전 분기보다 올랐으나, 여전히 기준치를 밑돌았다.

업종별 매출 전망 BSI는 디스플레이(111), 바이오·헬스(101), 화학(100)만 기준선을 넘었고, 나머지 업종은 모두 기준점을 하회했다.

특히, 자동차(92), 반도체(91), 무선 통신기기(96), 가전(95), 조선(98) 등 주력 업종을 포함해 정유(91), 철강(92), 섬유(92), 이차전지(87), 일반기계(96) 모두 전분기 대비 상승했으나,

여전히 매출 악화 전망이 많았다. 전분기 대비로 보면, 자동차는 전분기 수준 보합을, 이차전지는 추가 하락세를 보였다.

1분기 제조업 매출 현황 BSI는 77로, 전 분기 대비 10포인트 하락했다. 세부 항목별로 내수(79), 수출(86)은 전 분기보다 낮은 수준에서 기준치를 여전히 하회했다. 또 모든 유형에서 100을 하회하는 수준을 유지했고, 산업유형별로 ICT(75), 신산업(77)이 3분기 연속 하락세였고, 기계(79), 소재(77) 부문은 하락 전환했다.

제조업 경기조사와 함께 실시된 현안 설문(복수응답)에서는 경영활동에 가장 부정적 영향을 받는 요인으로 '내수 부진 및 재고 누증'(52%), '대외 불확실성 지속'(43%), '고환율 및 자재비 부담 가중'(36%) 등이 많이 꼽혔다. 특히, '이자 부담 가중 및 자금난'(26%) 응답은 전분기(19%) 대비 7% 포인트 증가했다.

제조업계는 트럼프 관세 정책 영향(복수 응답)에 대해 '주력품목 가격경쟁력 저하'(35.8%), '거래비용 증가 및 이익 감소'(35.4%), '투자 감소 및 지연'(31.9%), '해외 수출경쟁 구도 변화'(20.3%)라고 답했고, '실질적 영향 미미'(19.8%) 응답은 10곳 중 2곳 수준이었다.

품목별로 보면, 이차전지 업체들이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감소 및 지연
 (58%)을 크게 우려했고, 반도체
 (44%)·디스플레이(49%)·자동차
 (45%) 등 업체들은 주력 품목 가격 경쟁
 력 저하를 가장 우려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는 전략(복수응답)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 없음' (42.0%) 응답이 가장 많았고, '원가 절감 및 구매처다변화' (31.1%), '제품 경쟁력 제고 및 기술개발' (24.5%), '해외시장 개척 및 다변화' (13.9%) 순이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정부, 대미 협상전략 점검… “조선·에너지 등 경제협력 공고히”

산업부, 통상정책자문위원회 개최
정인교 본부장 “국익 확보 최선”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부

정부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조치에 대한 본격적인 대미 협의를 앞두고, 산학연 통상전문가 풀인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소집해 통상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통상정책자문위원회'(공동의장 서강대 국제대학원 허윤

교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그간 미국과의 협의 상황을 공유하

면서, 정부 대응전략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정인고 본부장은 최근 방미 결과를 설명하고 “90일의 유예기간을 잘 활용 해 우리 대응전략을 더욱 정교히 가다듬어 협상에 임해 국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 국민 만큼, 조선·에너지 등 양국 관심분야를 필두로 경제협력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를 주재한 허윤 공동위원장은 “관세조치 관련 주요국과 미국측과의 협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

다"며 "본격적 협상에 나선 우리 통상당국이 최선의 전략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산하연 통상전문가들이 그간 경륜을 바탕으로 적극 조언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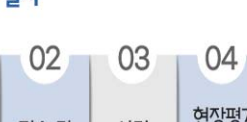
정부는 향후에도 대미 협의 과정에서 수시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대미 통상 리스크 대응에 만전을 기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허윤 공동위원장
을 비롯해 김덕재 IT여성기업인협회장,
김성우 김앤장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
구소장, 김태형 한국국제정치학회장, 박
석재 우석대 경영학부 교수 등 19명이 자
문위원으로 참석했다.

/세종=한용수기자




우리 경제의 모범, 명문장수기업 찾습니다



1 | 사업 개요

- 장기간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
- 중소·중견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하여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

2 |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업력 45년 이상인 기업 (공고일 2025. 4. 14. 기준)
- * 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제외

3 | 신청 및 접수

- 공고확인 : [중소벤처기업부(mss.go.kr) → 알림소식 → 새소식 → 사업공고] 또는 [명문장수기업 홈페이지(time-honored.or.kr) → 공지사항]
- 신청·접수기간 : 2025. 4. 14(월) ~ 5. 13(화)
- 신청방법 : 우편 및 이메일 제출 (반드시 우편, 이메일 모두 제출시 접수 완료)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중소기업중앙회(중소)/중견기업연합회(중견)에 제출 (우편)
 - 신청서, 서면평가자료 이메일(mmjs@kbiz.or.kr)로 제출

※ 국민추천제 :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중소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이 될 만한 기업을 온라인으로 추천

- 추천기간 : 2025. 4. 14(월) ~ 4. 30(수)
- 추천방법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mss.go.kr) [주요정책 → 국민추천 → 명문장수기업 확인] 에서 기업 추천
- * 이후 추천받은 기업에 추천내용을 안내해 예정 추천기업은 신청기간 내 신청서류 제출(평가방식 동일)

4 | 확인 절차

01	02	03	04	05	06
공고	접수 및 자격확인	서면 평가	현장평가 및 평판검증	심의 위원회	확정 및 확인서 발급

5 | 명문장수기업 지원사항

-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국문, 영문) 및 현판 부착
- 명문장수기업 마크 활용(생산제품 부착 및 회사 홍보에 활용)
- 방송·신문매체에 기업 홍보
-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 인력, 정책자금 등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 그 외 국가가 인정한 희소성 있는 명제로서 사회적 존경, 기업의 대외 인지도 상승, 우수인력 유입촉진, 매출 증대 등 부수적 효과 기대

6 | 제도 상세안내

- 서면 설명자료 게시
[명문장수기업 홈페이지(time-honored.or.kr) → 공지사항]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 가이드북 참고

7 | 문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 02-2124-3147~8
-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지원실 02-3275-3127



중소벤처기업부



KBIZ 중소기업중앙회



FOMEK 한국중견기업연합회